



# ASP트렌드에 대한 기사생각

정연석

월간 CIO편집장 / jeong\_s@ciokorea.com

현재 CIO매거진의 편집장으로서 국내 CIO 역할 및 직제 발전방향, CEO-CIO 관계, Change Agent 등 분야의 취재 영역을 맡고 있다. 관심사는 역시 CIO 등 Executive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역할개발 분야이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데 주로 공을 다루는 스포츠를 두루 즐긴다.

## eBusiness의 새로운 화두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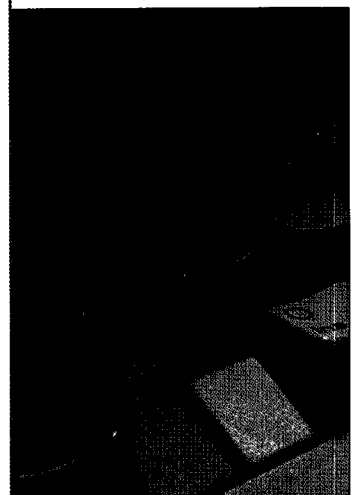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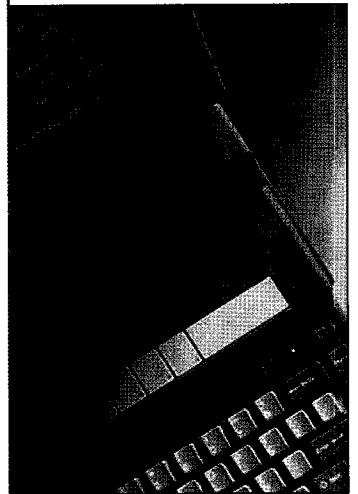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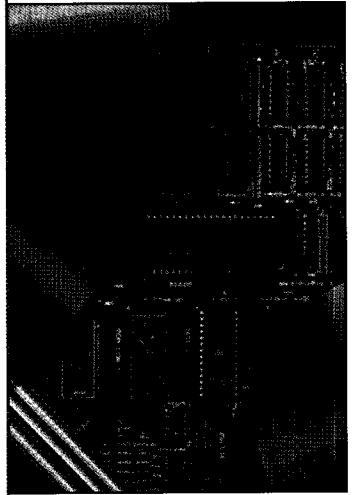
eBusiness가 화두가 된지 오래지 않았지만 이는 어느덧 트렌드로 인정해야할 만큼 급진전을 보였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에지(edge)에 있는 현상이 중심의 트렌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변화에 대한 예상은 그렇다고 해도 어떤 자세를 갖고 에지에 서느냐도 자못 중요하다.

98년 한 업체의 기사실에 7-8명의 기자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 와중에 e메일을 통한 보도자료 받는 것이 대화 선상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빼놓고 기자가 e메일로 자료를 받고 기사화하는 일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도자료는 방문해서, 우편으로, 또는 팩스로라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이다.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이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e메일로만 받기 시작하게 벌써 1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강력히 부정하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e메일은 기자업무 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업무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의 새 화두 가운데 하나인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놓고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e메일의 유용성 정도를 논하던 것이 주류(eBusiness)로서 자리잡은 것처럼 얼마후 ASP는 판도변화까지를 부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ASP가 얼마나 유용하고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얘기보다도 ASP의 출현, 확산은 지금까지의 정보화 방법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어서 사용자 기업들에서는 문화적 저항도 일어날 것이고 전산실이라고 하는 부서의 위상 자체도 바뀌게 될 것이다.

관점을 ASP 업체에 두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기업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ASP 업체의 정확한 동향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을 때 국내 기업들의 IT 전략이 올바르게 경쟁력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주 빠르게 변하는 동향들의 조각조각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KCRC**



## Humor

일에 지친 한 남자가 멋진 남태평양의 섬에서 휴가를 보낼 생각으로 그 곳으로 떠났다. 그의 부인은 출장 중이었고 그들은 그 섬에서 다음날 만날 계획이었다. 그가 섬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부인에게 E-mail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매일 주소를 적은 쪽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부인의 E-mail 주소를 알아내고 매일을 보냈는데 철자 하나를 바뜨려 E-mail이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었다. 그 사람은 어느 한 늙은 부인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바로 하루 전날 죽었다. 슬픔에 찬 부인이 이 매일을 체크하다가 목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쿵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소리에 가족들이 방안으로 들어와 보니 바닥에 떠있는 E-mail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지금 막 체크하고 들어왔소, 내일 당신이 도착하는데 모든 준비를 해 놓았어요.

추신: 이곳은 정말 끝내주는 곳이에요."